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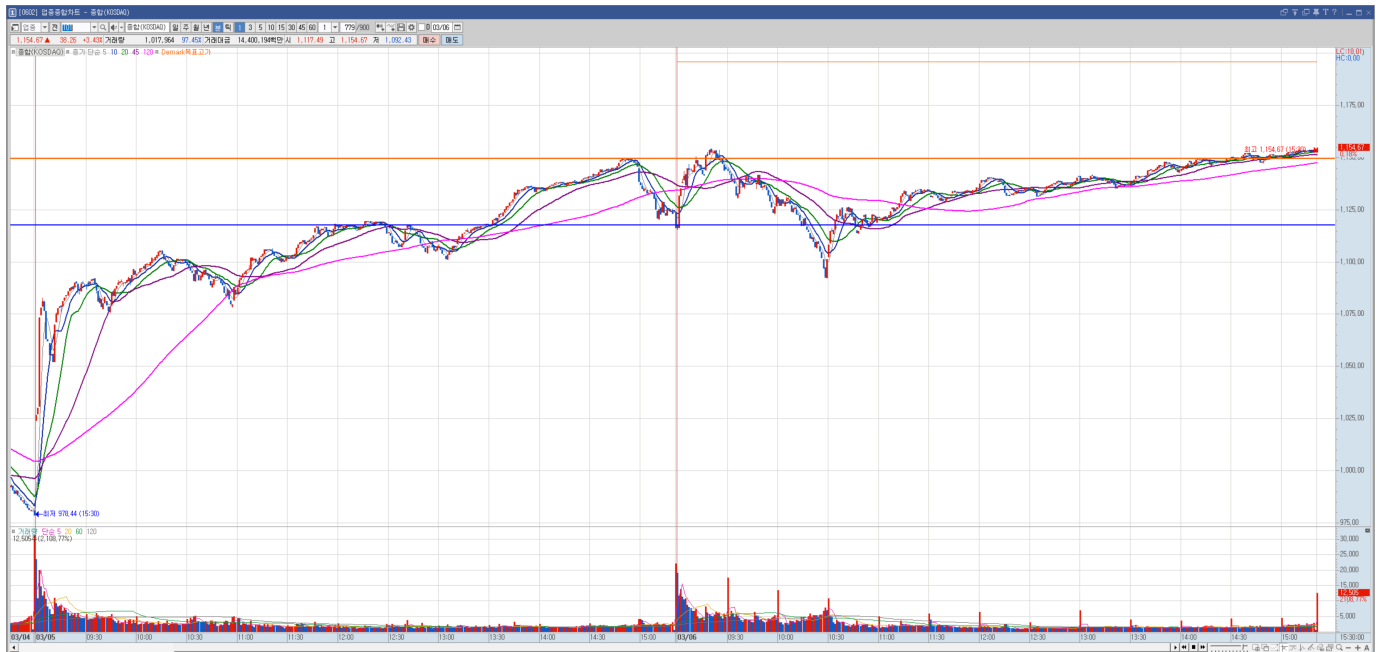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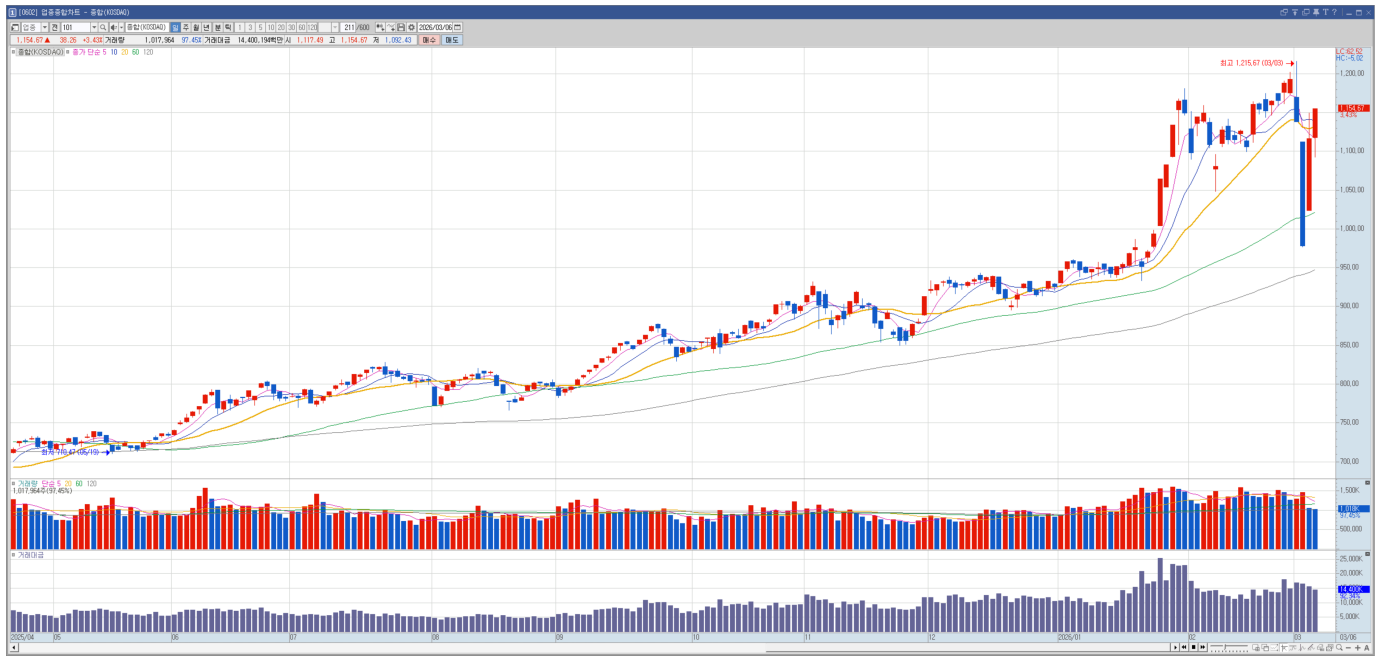
2026.03.06.(금) Signal Evening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 코스닥 지수 1154.67(+3.43%)



[03월 06일 (금) 시장 주도 종목 - to the DEEP]

< 반 / 디플 >

● **삼화페인트 (+29.91%)(343)**

삼화페인트, 삼성SDI와 '차세대 반도체 발열 제어 핵심' 고성능 MMB 개발 성공..."양산·공급 돌입"
 삼화페인트공업은 삼성SDI와 함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인 고성능 MMB(Melt Master Batch) 개발을 완료했으며 양산·공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삼성SDI에 공급돼 신규 출시된 모바일 기기의 핵심 AP 패키징에 탑재된다. 삼화페인트는 향후 모바일 및 AI 서버용 디램(DRAM)과 낸드(NAND) 메모리에도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삼화페인트와 삼성SDI가 개발한 MMB는 EMC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반제품으로 균일한 품질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원료를 섞는 기존의 드라이 블렌드(Dry Blend) 방식을 뛰어넘은 핵심 기술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의 휨(Warping) 현상을 방지하고 내습성과 방열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원익QnC (+20.03%)(799)

원익QnC, 북미 주력 고객사 내 입지 강화...'매수'-유안타

"반도체 부문 성장 가속화 구간 진입"...원익QnC 10%↑[특징주]

백길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향후 3년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의 신규 팹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북미 주력 고객사 내 원익QnC 입지는 재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만 고객사 내 동사 퀴츠 점유율 확대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을 재차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북미 고객사는 주요 부품 벤더들에게 재고 확보를 두 배 이상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올해 들어 국내 안성 및 대만 중심의 파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6년 1분기 전사 예상 영업이익은 247억원(+29.3%)으로 추정하며, 가동률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디아이티 (+17.18%)(131)

(26.01.26)디아이티, SK하이닉스와 317억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26.01.02)디아이티, 에스케이하이닉스와 212억원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

(25.09.26)[특징주] 디아이티, SK하이닉스-네이버·HBM 동맹에 ↑

디아이티는 기존 LCD-OLED 검사 장비 사업을 넘어, 반도체 웨이퍼·패키징 검사 장비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HBM과 같이 고집적·고속 특성을 가진 메모리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AOI(자동광학검사)·레이저 어닐링 기반 미세 결함 검사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메모리 업체에 납품해 왔다. 디아이티는 최근 SK하이닉스와 잇따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네오셈 (+16.37%)(850)

(25.11.17)네오셈 "신규 SSD·CXL 검사장비 내년 1분기 출시...최대 실적 전망"

(26.02.02)[리포트 브리핑]네오셈, 'HBM 다음은 HBF' - 미래에셋증권

네오셈은 국내 주요 메모리 제조사 및 북미 낸드 업체와 연합하여 HBF 검사장비 표준화를 공동 추진했다.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 데모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HBM6 도입 시점과 맞물려 폭발적인 장비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증권 장다현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오셈은 SSD 세대 교체 국면에서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ASP 상승과 마진 개선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GPU 보드에 HBM과 HBF가 병행 탑재될 전망이다 만큼, 선제적인 HBF 기술 확보는 시장 형성 초기 독보적인 장비 공급 기회로 연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텍 (+14.00%)(815) / 대덕전자 (+12.48%)(1423)

(26.03.05)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26.03.02)엔비디아, GTC서 차세대 AI칩 공개...삼성·SK 협력 관심

엔비디아는 이달 16일(현지시각)부터 1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GTC 2026에서 차세대 AI칩을 비롯해 피지컬 AI에 대응할 새로운 플랫폼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이알 프니니 시니어 디렉터와 판카즈 칼라는 GTC 2026에서 'AI 혁신을 위한 아키텍트: 공동 디자인 메모리+현재와 미래를 위한 스토리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포함해 HBM4E, 소캠(SOCAMM2) 등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메모리 기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티에스이 (+11.57%)(197)**

티에스이, 목표주가 14만원으로 73% 상향..."소부장 대표주 도약"-신한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프로브카드 성장 가속화, 인터페이스보드 수요 증가, 정보기술(IT) 자회사 실적 개선 등 성장의 3박자가 긍정적"이라며 "IT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장 동력으로 프로브카드, 인터페이스보드, 자회사 실적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고부가 제품인 동적 램(DRAM) 프로브카드는 생산 난이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 2024년 하반기 고객사 확대 이후 안정적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오 연구원은 "디램 제품 매출 확대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브이엠 (+10.01%)(503)**

(26.02.25)브이엠, 1~2월 수주만 1431억...D램 전환·신규 투자 수혜 기대-SK

이동주 SK증권 연구원은 "브이엠은 SK하이닉스의 주요 식각 장비 벤더 중 하나로 Poly-Si와 Metal 에칭 공정 영역 특화 장비를 공급 중"이라며 "기존 WH 장비의 상위 버전인 WS 장비의 필드 테스트는 2분기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WS 장비는 더 높은 중형비가 요구되는 공정 영역을 타겟으로 하며 장비의 판가가 상당히 높다"며 "양산 진입 시 판가 효과와 더불어 고객사 내 공정 점유율도 1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수주 모멘텀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공시된 수주 금액이 1000억원 수준이었던 반면 올해 1~2월 합산 수주 금액은 1431억원을 기록했다"며 "국내 및 중국향 D램 전환 투자 수주 건이 다수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신규 투자 관련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방산** >

● **LIG넥스원 (+9.31%)(34240) / 한화시스템 (+5.37%)(31870)**

대표 K방산 '천궁-II' 뒤통라...'명중률 96%'에 중동 UAE 추가요청 쇄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II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상대로 96%라는 경이적인 실전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날 밝혔다. 실전 명중률 96%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무기로 평가받는 미국 패트리엇 시스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평가다. 그만큼 천궁-II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것이다. 천궁-II는 최대 사거리 40km, 고도 15km 이하에서 적 미사일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 투 킬' 방식으로, 항공기와 탄도탄을 동시다발적으로 표적할 수 있다. UAE는 이란 공습으로 방공 무기 수요가 늘어나자 우리 정부에 천궁-II 포대를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기 계약 물량 등에 따라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불가능하면 요격미사일이라도 먼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 **디와이씨 (+29.96%)(68)**

(26.03.04)'K-방산' 숨은 심장 디와이씨, 자동차 부품사 넘어 방산 대장주 도약

(25.07.23)디와이씨, 방산 부품 기업 신세계정공 인수..."사업 다각화"

신세계정공은 K9 자주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을 포함하여 곡사포 및 박격포탄의 신관 부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체계인 천궁2,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등 국내 주요 방산 제품의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FNS, KDI, SG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안정적인 매출 창출을 이뤄왔다.

● **센서뷰 (+29.95%)(658)**

센서뷰, 천궁-Ⅱ 수요 확대 대비 레이더 핵심 부품 공급 대응

센서뷰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M-SAM Block II)'의 수요 확대에 대비해 관련 부품 공급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센서뷰는 천궁-Ⅱ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인 다기능 레이더용 안테나와 고주파 연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부품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 인도될 천궁-Ⅱ 체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센서뷰는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 수출될 천궁-Ⅱ 체계에 적용되는 레이더 관련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따르면 누적 수주 규모는 약 113억원 수준이다.

● **한일단조 (+29.84%)(686)**

(26.03.03)[특징주] 한일단조, 천궁-Ⅱ 탄두 구조체 생산...중동사태에 상승세

한일단조는 방산 화력 분야(탄약)에서 탄두와 탄체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단조·열처리·금속가공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한일단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궁, 천궁과 천궁-Ⅱ 탄두구조체, 155mm 포탄을 비롯해 자동차와 등 철제 제품을 만드는 단조 전문기업이다.

● **웨이브일렉트로 (+23.12%)(92)**

(26.06.18)웨이브일렉트로, 현궁-비궁 핵심 부품 공급...방산 수주잔고 또 역대 최대치 경신

웨이브일렉트로의 국방 무기체계 중 정밀타격용 유도무기(PGM) 핵심부품인 탐색기, 유도조정장치와 점검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비궁과 현궁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외에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과 단거리 함대공미사일 '해궁'에도 각각 웨이브일렉트로의 '점검장비', '탐색기용 제어보드'가 들어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퍼스텍 (+16.84%)(3185)**

(26.02.20)[특징주] 퍼스텍, 전문 고조 속 드론 기술력 재조명에 강세

퍼스텍은 LIG넥스원과 체결한 약 46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구동장치 공급 계약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맺은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양산 계약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천궁-2 등 유도탄의 비행 자세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구동장치는 퍼스텍의 주력 제품으로, K-방산의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이와함께 지뢰 제거 로봇, T-50 고등훈련기 및 수리온 헬기 등 국내 주요 체계사업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 **RF시스템즈 (+16.77%)(353)**

[특징주] RF시스템즈, '천궁-Ⅱ' 안테나 전량 공급에 수혜 부각 '급등'

RF시스템즈는 안테나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산 전문기업으로 금속 특수접합기술인 딥브레이징(Dip Braz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탐색기 안테나(Seeker Antenna) 국산화에 성공했다. 회사는 2020년부터 LIG넥스원의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Ⅱ(M-SAM)에 들어가는 탐색기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UAE향 천궁-Ⅱ의 탐색기 안테나 수주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 중이다.

● **이녹스첨단소재 (+13.28%)(255)**

(26.03.03)이녹스첨단소재, 유도미사일용 회로기판 소재 공급

이녹스첨단소재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의 유도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회로기판용 핵심 소재를 공급하며 방위산업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회로기판 제조사를 통해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의 유도미사일용 회로기판 소재인 본딩시트(Bonding Sheet) 및 커버레이(Coverlay)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공급된 소재는 유도미사일 내부 회로기판의 적층, 절연 및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녹스첨단소재는 스페이스X(SpaceX)향 소재를 다년간 공급한 바 있어, 이번 공급을 통해 최첨단 정밀 로켓 소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소재 기술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코트테크놀로지 (+12.95%)(255)**

(26.03.03)[특징주] 코트테크놀로지, 사격 통제 장치 국산화 참여에 ↑

(25.11.23)국내 유일 '방산기기 두뇌' 제조...코트테크, 해외판로 확장나선다

방산용 SBC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코트테크놀로지가 유일하다. LIG넥스원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 대기업이 코트테크놀로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K-2 전차와 지대공 미사일 천궁-II는 코트테크놀로지의 임베디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사일 제어 메인보드, 음파 탐지기(소나), 무인기용 표준 SW 등도 공급 중이다.

< **에너지** >

●**HD현대에너지솔루션 (+29.97%)(4963) / 한화솔루션 (+16.67%)(9180) / 파루 (+19.28%)(173) / OCI홀딩스 (+15.38%)(435) / 대명에너지 (+12.32%)(84)**

원유 공급 차질 우려 '태양광' 뜨고 '석유주' 약세

(26.03.05)모든 길은 우주로 통한다...스페이스X '빅뱅'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 규모에서 2040년대에는 1조달러(약 1470조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머스크는 "우주 기술은 미래 데이터센터 규모 확장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별도의 운영비용 없이 24시간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2~3년 내 AI 컴퓨팅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26.03.05)한화솔루션 주가 다시 불 뿜나, '스페이스X 상장'에 미국 관세 반사수혜 기대감까지

KB증권은 "100GW/년 우주 태양광 시대가 오면 매출 38조 원, 영업이익 15조2천억 원 규모 시장이 열린다"며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을 고려하면 태양광 선두 업체인 한화솔루션은 영업이익 2조5천억 원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화솔루션 목표주가는 6만7천 원으로 제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월 말 2026년 미국 유틸리티(대형 발전소급) 규모 태양광 신규 설비가 신규 설치가 2025년보다 60% 늘어난 43.4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량 감소를 전망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부지에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직접 설치하고 있다.

●**에스에너지 (+29.96%)(57)**

[클릭 e종목]"에스에너지, 국내 첫 HJT KS 인증 획득...태양광 수주 이어져"

이충헌 벨류파인더 연구원은 "일론 머스크가 AI 확산에 따른 전력 병목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주 태양광을 언급하며 태양광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에스에너지가 최근 국내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모듈 공급 협약을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사가 최근 AI 데이터센터용 독립형 전원 공급 솔루션 개발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자금 조달은 단순한

재무 목적보다는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태양광뿐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전자재료 (+23.24%)(2316)

(26.02.09)[모닝 리포트] "대주전자재료, 목표가 10만원 유지"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1분기에는 이익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도 실리콘 음극재·형광체·태양전지용 페이스트 등 여러 사업부문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권 연구원은 "실리콘 음극재 부문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신규 배터리 고객사(전동공구)향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 파나소닉(북미) 내 점유율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항공우주 업체에서 대주전자재료의 페이스트 제품 관련 문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향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6.03.05)대주전자재료, 스페이스X 방문에 태양광 사업 기대감(유료기사)

대주전자재료의 스페이스X 공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X 관계자가 한국에 직접 방문해 샘플을 요청하는 등 계약 체결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조만간 태양광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전자재료에 스페이스X 관계자들이 방문해 태양광 관련 제품공급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양그린파워 (+12.79%)(396)

금양그린파워, 석유·에너지 대란 속 태양광·풍력 1GW 발전량 확보·새만금 사업 참여 기대

금양그린파워는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총 1.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주풍력(50MW), 포항풍력(155MW) 등 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 사업도 병행하면서 신재생 발전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8.29%)(7434)

두산에너지빌리티, 가스터빈 넘어 우주부품까지

美서 소형모듈원전 상용화 '속도'...두산에너지빌리티, 핵심소재 공급 본격화

테라파워는 NRC의 승인을 받아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2030년 실증로 가동이 목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 SMR에 주기기 3종을 공급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2024년 말 테라파워와 원자로 보호용기, 원자로 지지구조물, 노심동체구조물 등 주기기 3종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말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 엑스-에너지가 건설하는 SMR Xe-100 16대에 핵심 소재인 단조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비에이치아이 (+17.33%)(868)

(25.10.29)"비에이치아이, 가스터빈 수요가 늘어나면 주목받을 기업" - SK證

대신증권 "중동 긴장 고조...미국산 LNG 수요 확대 가능성"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원유보다 LNG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LNG의 경우 원유와 달리 우회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없어 공급 차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카타르는 최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LNG 생산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가 글로벌 LNG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는 세계 공급의 약 2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해상 운송 루트와 공급 확대 여

력을 동시에 갖춘 미국산 LNG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수출국으로 빠르게 부상했으며,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현재 대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BIO >

●에스티큐브 (+26.00%)(376)

(26.03.05)[모닝 리포트] "에스티큐브, 면역항암제 임상 진전...하반기 데이터 주목"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넬마스토바트는 PD-(L)1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을 겨냥한 차별화된 접근으로, BTN1A1을 직접 차단하는 기전을 통해 기존 면역항암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임상 데이터 공개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현재 회사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넬마스토바트와 카페시타빈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 데이터에서는 객관적 반응률(ORR) 13.5%, 무진행생존기간(mPFS) 4.2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치료 대비 mPFS가 약 두 배 수준으로 개선된 결과라는 평가다.또한 비소세포폐암(NSCLC) 등 다른 암종으로 임상 확대도 진행 중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임상 2상 환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 결과에 따라 추가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그로쓰리서치는 특히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전이성 대장암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확인될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L/O)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큐리언트 (+19.25%)(549)

(26.03.05)'황금티켓 PRV' 손에 쥔 큐리언트, 치솟는 가격에 '방긋'

큐리언트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선심사권(PRV)' 거래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주력 파이프라인인 '텔라세벡'(Telacebec, Q203)의 임상 순항으로 대규모 자산 확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RV는 미국 FDA가 신약 개발이 까다롭거나 수익성이 낮아 방치되기 쉬운 특정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통상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신약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신약개발 기업들에게는 '황금티켓'으로 불린다.PRV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기업들에게 양도(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1억달러에서 1억5000만 달러 수준에 거래되던 PRV 가격은 최근 2억500만달러(약 3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PRV 공급이 감소해 2026년 이후로는 거의 공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투지바이오 (+14.63%)(968)

(26.03.04)'상장 6개월차' 지투지바이오에 기관투자자 1500억 베팅한 이유?

(26.02.24)'1500억 실탄' 지투지바이오...2공장 기반 글로벌 파트너십 박차

지투지바이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7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CPS) 유상증자와 7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총 15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가장 힘이 실리는 분야는 제2GMP 공장 건설로 대표되는 생산 능력 확대다. 지투지바이오는 반감기 연장 의약품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차세대 미립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량생산과 고함량 약물 탑재가 가능한 독자 플랫폼 '이노램프'는 전세계적으로도 공급이 한정적인 주사제용 미립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내 경쟁 우위를 갖춘 기술로 평가된다.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지투지바이오의 차기 과제는 대량 생산력 확보다. 회사는 현재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내 장기지속형

미립구 주사제 전문 GMP 생산시설인 1공장을 운영 중이다.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증설이 마무리되면 기존 대비 5배에 달하는 생산력을 갖추게 된다.

●**코오롱티슈진 (+10.46%)(1054)**

(26.01.21)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치료제 'TG-C' 임상시험 막바지...7월 결과 발표 주목

코오롱티슈진 TG-C, 美 정형외과학회 참가...네트워크 강화

코오롱티슈진은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26 미국 정형외과학회 'AAOS'에 참가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TG-C의 기존 임상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밝혔다.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소통과 함께 TG-C 상업화와 관련한 잠재적 파트너사와 협의도 진행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의학부서(Medical Affairs) 담당자 및 자문단을 대상으로 TG-C의 의학적 가치와 향후 상업화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막바지에 이른 TG-C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지난 바이오컨퍼런스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에서 미팅 자리를 가졌던 글로벌 정형외과 의료기기 기업들과도 후속 미팅을 가지는 등 관련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 **로봇 / 이차전지** >

●**한국피아이엠 (+21.07%)(505)**

NH證 "한국피아이엠, 감속기 기반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편입 가시화"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관점에서 중소형 로봇주 선별 요건은 2가지로,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등 로봇 내 원가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 공급과 보스턴다이나믹스, 테슬라 등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 편입 여부"라며 "한국피아이엠은 국내 유일 티타늄 MIM 역량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깨·팔 관절에 적용되는 브라켓·손가락 관절용 초소형 감속기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강 연구원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과 감속기 부품인 브라켓 포함 총 10여종의 부품 공급을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7월 개발건을 수주해 이달부터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케이티 (+20.33%)(332)**

(26.02.23)[클릭 e종목]"디케이티, 실적은 OLED·Auto, 멀티플은 로봇에서"

로보틱스는 단순 신사업이 아니라 포지셔닝 변화를 이끄는 전략 사업으로 제시됐다. WPC, ESS BMS, FPCA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최근 북미 소재 고객사와 로봇용 충전 모듈 관련 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샘플 공급과 양산 전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초기 납품이 개시될 경우 하반기 매출 인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의 결정적 트리거는 로보틱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단순 계열사 프레임이 아닌 독자적 성장 동력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브스메드 (+16.16%)(825)**

(26.02.13)'몸값 거품' 불식시킨 리브스메드...기술특례 불신의 늪 마침표 찍는다

(26.01.19)주식 시장 안착한 리브스메드...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할까

리브스메드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미 전 세계 주요 시장의 문턱을 모두 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복강경 시장의 약 70%는 여전히 관절이 없는 '직선형 수동 기구'를 쓴다는 점도 리브스메드에게 기회다.리브스메드 관계자는 "주력 제품인 아티센셜은 미국 FDA, 유럽 CE, 일본 PMDA 인허가를

일찌감치 획득했다"며 "특히 최신 모델인 혈관봉합기 아티셀(ArtiSeal) 역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마쳤으며,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등재까지 완료돼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수출 판로 또한 강력하다. 미국 최대 의료기기 구매대행조합(GPO)인 헬스트러스트(HealthTrust)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미국 내 약 4,300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는 단순한 시제품 판매를 넘어 대규모 물량 수출이 가시화됐음을 의미한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52억 달러(한화 약 20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 기구 시장은 매년 8% 가까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업체는 현재 7% 수준인 침투율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엘엔에프 (+10.84%)(672)**

(26.03.05)[단독] LG엔솔, 테슬라 배터리서 'LG화학' 빼고 '엘엔에프'...치열한 기술경쟁에 모회사도 배제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에 니켈 비중을 94% 이상으로 끌어올린 울트라하이니켈 배터리를 적용하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형 모델Y 롱레인지, 사이버트럭 등을 시작으로 전 모델에 도입할 예정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테슬라 신형 모델Y 롱레인지 등에 납품되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에 LG화학 대신 엘엔에프의 양극재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다. 테슬라가 니켈 비중 94% 이상의 울트라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 모델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재사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케이엔에스 (+13.99%)(342)**

케이엔에스 "관계사, 美 최대 전기차 46파이 핵심 부품 최종 통과·양산 개시"
케이엔에스의 관계사 종루이코리아가 북미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부터 46파이(4680)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한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양산을 개시했다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현재 종루이코리아를 제외하고 해당 부품에 대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은 전무하며 양산까지 개시한 기업은 종루이코리아가 유일하다. 종루이코리아는 이번 양산을 시작으로 이른 시일 내 제품 공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제품을 공급받는 엔드유저가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막강한 현금 창출원을 확보했다는 게 내부적 평가다.또한 종루이코리아는 향후 추가 발주 물량 확대에 대비해 3공장 증설도 논의 중이다.

< **개별주** >

● **에스팀 (+300.00%)(980)**

(26.02.13)에스팀 "단순 에이전시 아냐...'브랜드 인큐베이팅'으로 승부" [IPO출사표]
에스팀은 대중들에게는 이미 모델 에이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장윤주, 한혜진 등이 에스팀에서 성장한 대표 지식재산권(IP)이다. 에스팀은 단순 IP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브랜드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꿈꿨다.브랜드 인큐베이팅은 단어 그대로 브랜드를 키우는 것이다. 고객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고 또는 리브랜딩을 위해 에스팀에 의뢰를 하면, 에스팀이 콘텐츠 기획부터 연출, 아티스트 섭외, 제작, 사후 홍보까지 맡는 시스템이다.에스팀은 2013년부터 국내 최대 패션 행사인 서울패션위크 총괄 운영을 맡으며 기획력을 증명해 왔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기획·제작 경험도 축적했다.

● **우정바이오 (+29.93%)(116)**

(26.03.05)콜마홀딩스, 350억원에 우정바이오 경영권 인수
(26.03.05)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까지 원스톱...신약 개발 속도낸다

콜마홀딩스는 최근 우정바이오가 발행한 35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전량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콜마홀딩스는 지분 47.22%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콜마그룹의 제약 계열사인 HK이노엔과의 연구개발 연계 가능성도 주목된다.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의약품과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정바이오의 비임상 연구 인프라가 HK이노엔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경우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정바이오가 경기 동탄에 바이오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도 운영 중인 만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이터닉스 (+13.99%)(588)

[특징주]SK이터닉스, 글로벌 투자사 KKR 인수 소식에 10%↑

SK디스크버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SK이터닉스 주식 1045만5825주를 KKR이 운용하는 펀드가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SK디스크버리가 보유한 지분 전량(30.98%)에 해당하며 처분 금액은 2478억원이다. SK이터닉스 지분 12.52%를 보유한 한앤컴퍼니도 전량인 422만 5455주를 1001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SK디스크버리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 (+11.34%)(614)

"넷마블,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최대 수혜주...목표가↑"-미래

구글 정책 변경으로 넷마블의 올해 연간 지급수수료는 3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앱 수수료가 인하하며 게임사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국내 게임사 중 넷마블의 이익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수수료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며 인앱결제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낮추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며, 내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현대제철 (+11.03%)(1363)

한화증권 "현대제철, 주가 저평가 심해...업황 개선 기대"

권지우 연구원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철강 업황의 구조적 턴어라운드(실적 개선)"라며 "국내 시장은 3월 주요 제강사들의 동시 대보수 및 라인 폐쇄 등 인위적인 공급 통제가 물리적 공급 부족을 야기하며 제품 가격 인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로 연간 약 96만톤의 신규 철강 수요가 창출되는 가운데 경쟁국들이 고율 상계관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국산 철근의 수출 반사이익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미 철근 수출량은 작년 대비 377% 급증한 43만톤에 달할 전망이며, 1분기에만 34만 톤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증권 (+10.79%)(3213)

[특징주]자사주 소각 앞둔 SK증권, 연일 강세...8%대↑

(26.03.05)[특징주] SK증권, 자사주 소각과 주식 병합 소식에 23% 급등

SK증권은 182억원 규모의 보통주 1000만주를 소각하고 기존 액면가 500원이던 주식도 1000원으로 병합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액면 병합으로 SK증권 발행 주식 수는 기존 4억7259만171주에서 2억3629만

5085주로 줄어들 예정이다.소각 예정일은 오는 11일이며 신주권 변경 상장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이 안건들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6.03.06.(금) 한 장으로 보는 이브닝

#반도체 #방산

▲ 코스피 5584.87 (+0.02%)

▲ 코스닥 1,154.67 (+3.43%)

반 / 디플

삼화페인트 (+29.91%) ▲
원익QnC (+20.03%)
디아이티 (+17.18%)
네오셈 (+16.37%)
심텍 (+14.00%)
대덕전자 (+12.48%)
티에스이 (+11.57%)
브이엠 (+10.01%)

방산

LIG넥스원 (+9.31%)
한화시스템 (+5.37%)
디와이씨 (+29.96%) ▲
센서뷰 (+29.95%) ▲
한일단조 (+29.84%) ▲
웨이브일렉트로 (+23.12%)
퍼스텍 (+16.84%)
RF시스템즈 (+16.77%)
이녹스첨단소재 (+13.28%)
코ште크놀로지 (+12.95%)

에너지

HD현대에너지솔루션 (+29.97%) ▲
한화솔루션 (+16.67%)
파루 (+19.28%)
OCI홀딩스 (+15.38%)
대명에너지 (+12.32%)
에스에너지 (+29.96%) ▲
대주전자재료 (+23.24%)
금양그린파워 (+12.79%)
두산에너지빌리티 (+8.29%)
비에이치아이 (+17.33%)

BIO

에스티큐브 (+26.00%)
큐리언트 (+19.25%)
지투지바이오 (+14.63%)
코오롱티슈진 (+10.46%)

로봇 / 이차전지

한국피아이엠 (+21.07%)
디케이티 (+20.33%)
리브스메드 (+16.16%)
엘앤에프 (+10.84%)
케이엔에스 (+13.99%)

개별주

에스팀 (+300.00%) ▲
우정바이오 (+29.93%) ▲
SK이터닉스 (+13.99%)
넷마블 (+11.34%)
현대제철 (+11.03%)
SK증권 (+10.79%)